追慕法語

우리법인과 산하시설의 설립자이신 (故)정안스님 다례제(11주기) 봉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故)정안스님은 오갈 데 없는 어린이부터 어르신, 장애인을 아우르고 본인보다는 대중을, 법흥사보다는 법인과 시설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보시(후원)를 실천하며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진력하였습니다.
(故)정안스님은 혜안종사로써 지금의 사회복지가 대세이지만 그 시절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부처님 자비도량을 구현하고자 어렵게 모은 삼보정재의 희사와 꼬깃꼬깃한 쌈지돈까지 모두 다 아낌없이 내 놓으셨습니다.
큰스님은 오로지 자비의 실현을 화두로 삼아 사회복지를 위해 정진하신 선구자이시며 탁발과 정성으로 일구신 이 도량과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해 여러 산하시설을 창건하셨고,
우리들에게 자비희사와 육바라밀을 아낌없이 듣고 구원해 주신 관세음보살이요, 여러 행원을 실천해 주신 보현보살의 화현이셨습니다.
이러한 (故)정안스님의 설립취지는 물론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유지로 받들고 법인과 산하시설이 우수한 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며 우뚝 설 수 있게 하셨고, 여러 입주자를 모시며 우리들에게 직장이란 삶과 행복한 미래와 희망의 원천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故)정안스님의 11주기를 맞이하여 다례제를 한마음으로 봉행하오니 이제라도 편안하게 극락세계에 왕생하시옵고, 우리들 또한 큰스님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사회복지에 매진하여 더 좋은 결과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큰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암산하법흥사 복지도량일신개 관음보현무설설 염화미소일심좌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 연화거륜 처처만개하니라!

불기 2564(2020)년 7월 14일 관음재일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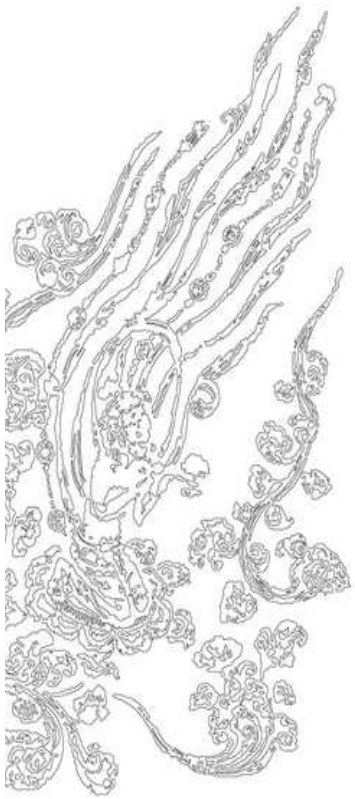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 이사장 해산 분향

興法堂 正眼 大禪師
11周忌 茶禮祭

○일시 : 2020.7.14.(화)10:30

○장소 : (재)선학원 법흥사 대웅전, 부도전

○주최·주관 : 사회복지법인예천연꽃마을·법흥사



(財) 禪學院 法興寺

式 順

☸ 1부 불공

상단권공

중단퇴공

☸ 2부 다례제

거불

행장소개

추모법어

다례의식

<헌다, 헌향, 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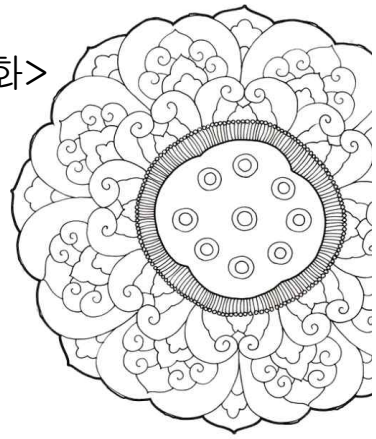
종사영반

문도대표 인사

봉송

☸ 3부 참배

부도전



興法堂 正眼 大禪師 行狀

흥법당 정안 대선사(1950-2009)께서는 일찍이 세상의 무상함을 간파하시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을 품고 지리산 대화엄사로 출가하시었습니다.
화엄사 승가대학에서 부처님의 팔만장경을 두루 섭렵 하시고 뜻한 바 있어 불교계에서는 맨 먼저 사회복지사업 불사의 원력을 세우셨고,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구암산 아래 법흥사에, 터전을 잡으시고 의지할 곳 없어 버려진 우리의 이웃들을 남녀·노소·장애인까지 차별 없이 보살피시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도 있는 것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입니다."라는 말을 화두 삼아 불철주야 그들을 위해 "관음이 되고 보현이 되어 탁발과 화주로 동체대비를 몸소 실천 하셨습니다.
밖으로는 청송감호소 및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의 교화 활동으로 1991년 6월에 대통령 교정특별대상을 수상하셨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경북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과 전국 노인복지시설 협회 이사로 활동 하셨으며,
안으로는 1996년 8월 20일에 사회복지법인"예천연꽃마을"을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에 취임 하였고, 그 산하에는 노인요양시설 "예천연꽃마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극락마을", 노인요양시설 "상주보림원" 등 3개의 시설에 거주하는 식솔이 250 여명에 이르니 30여년간 헌신적인 스님의 노고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오호 통재라! 이제 세연이 다 하시어 2009년에 열반에 드시니, 우리 대중들은 그 뜻을 받들고자 기리고자 경자년 금월 법흥사 대웅전에서 큰스님 11주기에 다함께 모여 발원하오니 큰 스님께서는 하루빨리 사바세계에 현현하시어 미혹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기 2564(2020)년 7월 14일

흥법당 정안 대종사 11주기 다례제 참가자 일동